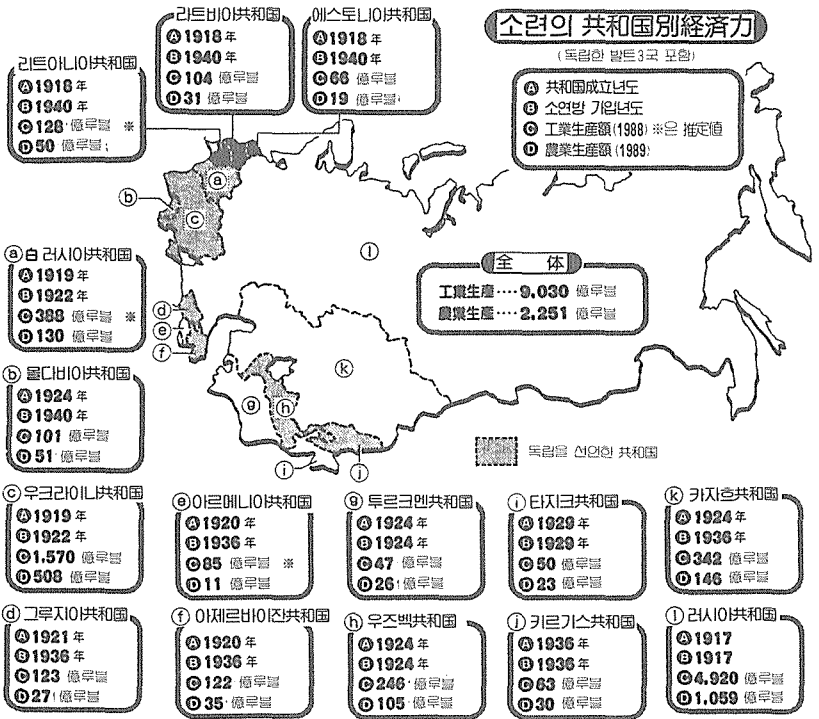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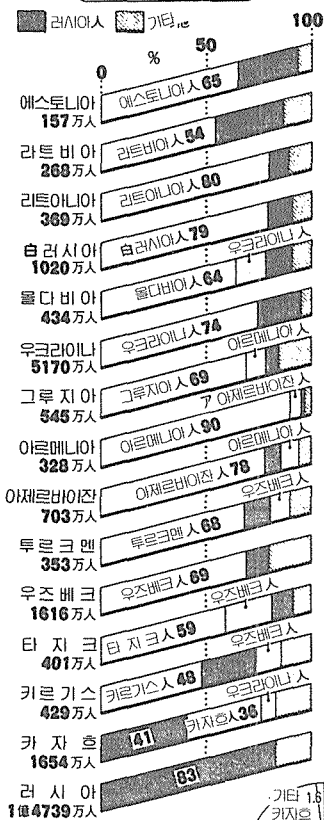


# 그림으로 보는 소련연방과 경제력

소련연방이 해체되더라도 각 공화국은 자립할 수 있는 경제구조가 못된다. 최근엔 독립한 발트3국만 하더라도 석유자원이 없으며, 또 이를 구입할 외화도 없기 때문에 경제자립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. 공화국들은 현재의 혁명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으나 공화국간의 경제력 격차가 새로운 착취관계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. 즉 공화국간의 남북문제다. 석유생산량만 보더라도 러시아공화국이 전체의 99.9%를 차지하고 있다. 지금까지 국제가격의 4분의 1수준으로 석유를 공급받던 다른 공화국들은 앞으로는 시장가격으로 구입해야 할 상황이다.

〔共和国의 민족構成比〕



〔基礎産業의 共和国別 比率〕

